

쇼와 덴코 할로겐램프로 지워지는 잉크 개발

뉴텍코리아 터치식 노트북 컴퓨터 개발

▲ 쇼와 덴코

할로겐램프 등의 빛에 의해 복사용지에 복사된 문자를 지워서 용지를 재사용할 수 있는 잉크(착색제)가 개발돼 내년 봄이면 실용화될 전망이다.

日本の 화학업체인 쇼와덴코(昭和電工)社가 개발한 이 잉크는 안료의 원료가 되는 아닌계 색소와 유기효소인 암모니움염을 혼합하여 만든 염료이다.

이 제품은 형광등 수준으로서는 반응이 없지만 할로겐램프 등 파장길이가 8백 20나노미터 정도의 근적외선을 쬐 경우 이 빛을 흡수하여 무색이 되는 성질을 갖고 있다.

이와관련 복사기업체와 필기구업체들이 잉크의 개발에 착안하여 이를 복사기에 사용할 수 있는 토너를 개발하는 한편 광원에 할로겐램프를 사용, 문자를 지울 수 있는 기계(消色機)의 개발에 착수했다.

쇼와덴코社에 의하면 기계는 내년 봄에는 실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컬러복사의 토너카트리리지수준의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코스트다운에 주력하고 있다.

복사용지를 복사기와 소색기에 상호연결함으로써 종이를 반복 사용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종이 1장당 들어가는 복사원가에서 종이값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때문에 복사비용은 현재로서는 거의 줄일 수 없다는 것이 이 회사의 견해이다.

또 OA기기개발회사인 시스템스 인텔리전스 프로덕스社는 독일인이 기본특허를 갖고 있는 것으로 가열에 의해 문자인쇄, 삭제가 자유자재로 가능한 종이 등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2~3년내 복사용지의 재생방법이 보급될 것으로 보인다.

▲ 뉴텍코리아

화면에 손을 대면 작동되는 터치식 노트북컴퓨터가 선

보였다.

뉴텍코리아는 터치스크린을 채택한 노트북컴퓨터를 개발, 내달 美國라스베가스에서 열리는 컴퓨터 전문 전시회인 컴덱스에 출품한다고 밝혔다.

뉴텍은 이제품이 화면에 표시된 명령어나 그림에 손가락을 대면 작동하는 터치스크린을 장착해 편리하게 쓸수 있으면서도 키보드와 화면을 동시에 쓸수 있고 기억용량 등 기능이 우수한 것이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뉴텍은 올해 이제품을 1천 5백대가량 수출하고 내년부터 본격생산, 연간 3만대씩 수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 제품에 관련된 특허를 국내외 업체에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KIPA通信」폐간

그동안 매월 10일 뉴스페이퍼식으로 발행해온 「KIPA 통신」은 지난 6월 「격월간 특허관리정보」의 창간에 따라 8월호를 마지막으로 폐간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새로 창간된 특허관리정보도 회원에게는 무료 제공됩니다. 많은 애독바랍니다. <編輯者 註>